

ISSN 1229-019X

구비문학연구

제 48 집

[별쇄본]

함흥본 <바리데기>의 죽음의 이해

신연우

한국구비문학회

2018. 03. 31.

함흥본 <바리데기>의 죽음의 이해

신연우*

차례

1. 머리말
2. 작품의 경계와 분석
3. 죽음의 신화성과 의례성
4. 맺음말

<논문개요>

함경도 함흥 지경에서 연행되는 사령국인 망목국에 서사무가 <바리데기>가 있다. 그런데 함흥의 바리데기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바리데기와 결말이 너무도 달라서 해명이 필요하다, 여섯 언니와 바리,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모두 죽는 것이다. 본고는 이 특이한 결말을 문학적, 국 의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적 이해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함흥본 <바리데기> 서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아버지조차도 남성적이지 않은 모습은 이 <바리데기>의 특징인데 이는 여성성의 확대의 결과이다. 과도한 여성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다루었다고 보인다. 이 문제를 막내딸인 바리를 외부로 보내어 해결책을 찾아오게 하였다. 바리는 서천으로 가는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에서 지혜를 얻어 내면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점은 지옥을 여행하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남편과 아들 열들을 낳아도 남편 몰래 꽃을 훔쳐오는 것은 남편과 하나가 아닌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주목된다. 과도한 여성성을 부정한 바리는 돌아와서 어머니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상에서 설명한 전반부와, 등장한 모든 여성이 죽고 마는 결말의 서사는 결이 다르다. 옥황에까지 가서 구해온 환생초로 살려낸 어머니조차도 아이없이 죽어버리는 결말 부분은 효를 강조하는 바리공주의 일반적 이해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서울 경기의 바리공주가 보여준 효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의 결과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질없어서 기껏 살아난 어머니도 곧 죽고 만다. 모든 여성이 죽고 마는 것은 효 이데올로기의 전면적 부정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보이던 골계와 무질서가 삼년 묵은 보리 그루터기에 얹어져 죽었다는 허망함으로 이어져서 효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

셋째, 서사작품으로의 틀을 넘어서, 함흥본 <바리데기>가 굿이라는 목적 지향성이 강한 의례라는 점을 주목하면 이 무가의 기능이 다른 지역의 바리데기와 달리 일차적으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전생탈, 이승탈을 벗기는 것이고, 탈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죽음이기에 등장인물이 모두 죽는 것으로 설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벗어나야 할 육신의 탈이기에 몸과 죽음에 대한 희화가 가능했다고도 보인다. 또한 바리가 망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에 그것은 청정각시 또는 저승사자와 동갑들의 몫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바리가 신이 되지 않고 죽어버리기에 그것은 옥황에서 낳은 열두 아들의 몫으로 이전되었다고 이해된다.

아울러 이고분 본의 함흥본 <바리데기>는 수용자에 의한 역사적 재해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는 점도 지적했다.

핵심어 : <바리데기>, 함흥, 망목굿, 지금섬, 이고분, 죽음, 여성성, 탈, 굿의례

1. 머리말

함경도 함흥지역의 사령굿을 망목굿이라고 한다. 망목굿에는 오기풀이라는 제차가 연행되는데 여기에 바리데기 서사무가가 영창된다.¹⁾ 지금까지 알려진 함흥 바리데기는 지금섬 무녀와 이고분 무녀가 연행한 두 종류가 있다. 지금섬의 자료는 임석재가 채록하여 『관북지방무가』(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3호)에 수록하였다. 지금섬의 원래 녹음자료와 연행 영상자료를 취합하여 윤준섭이 교합본을 내기도 하였다.²⁾ 이고분의 자료는 김태곤이 채록한 것으로 『한국무가집 3』에 실려 있다.³⁾

1) “또한 북부지방 사령굿의 대표적인 것으로 함흥 지방의 망무기 행사를 보면 …… 일곱 번째의 바리데기 이야기는 경성 지방의 바리공주와 같은 계통의 신화이다.” 적송지성, 추업웅, 『조선무속의 연구 下』,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181쪽.

2) 윤준섭, 『함흥본 <바리데기>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부록, 2012.

3)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92, 124-150쪽.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함흥 지역의 바리데기는 다른 지역의 것들에 비해 이상하게 여겨지는 곳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마지막에 여섯 언니와 바리 자신과 어머니 모두 죽어버리는 설정은 여간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여섯 언니는 욕심꾸러기에 효심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지만 서천서역국까지 가서 약수를 길어온 바리도 죽고 그렇게 애써서 되살려놓은 어머니도 죽고 마는 것은, 이것이 망자를 인도하자는 곳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윤준섭은 바리데기가 왜 무조신이 되고 무조신이 되어서 망자를 천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⁴⁾

서대석은 서울지역의 <바리공주>가 논리적 구성과 숭고미를 보이는 것에 반해 함흥본은 비속한 표현과 삽화의 독자성, 골계적 성격을 들어 평민 의식을 반영했다고 보았다.⁵⁾ 홍태한은 북한지역의 <바리공주>가 본래의 구조에서 어그러진 것이고 유기적 관계가 미약하다고 보았다.⁶⁾ 안신영은 함흥본의 바리데기가 공포의 원귀, 파괴적인 여성이라고 보았다.⁷⁾ 심우장은 함경도의 바리데기는 영웅서사문학의 모습으로부터 탈주하려는 경향을 극대화하였다고 보았다.⁸⁾ 정제호는 바리공주가 구약여행을 자력으로 하지 못하고 옥황의 도움을 받았으며 환생꽃을 훔친 죄를 지었기에 죽음에 이른다고 보았다.⁹⁾ 정제호의 해석은 너무 합리적인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여서 신화적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을 준다. 조현설은 최대의 의문인 결말에 대하여 불교에 대한 무속의 강한 부정의식의 표출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¹⁰⁾

4) 윤준섭, 앞의 논문, 82쪽.

5) 서대석, 「바리공주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210쪽, 253쪽.

6) 홍태한,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진승 양상」,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2002, 15쪽.

7) 안신영,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서울본과 함흥본의 대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6, 51-53쪽.

8) 심우장,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 찾기- <슈렉>과 <바리공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9집, 어문연구학회, 2009, 149쪽.

9) 정제호, 「관북지역 <바리공주>의 ‘죽음’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제25집, 2012, 38쪽.

10) 조현설, 「관북지역 본 <바리데기>의 유형적 특이성과 불교와의 관계」, 『2010년 한국구

윤준섭은 함흥본 <바리데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비극적 인물이 회화화되는 특징을 가지며 신성성과 세속성이 공존한다고 지적하고, 조현설과 마찬가지로 비극적 결말은 불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보았다.¹¹⁾ 일정부분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결말뿐 아니라 전반부부터도 너무 독특한 성격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만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 이고분 본에는 스님이 아니라 할머니로 되어 있어서 불교적 의미가 약하다. 더욱이 같은 함경도 지역에서 전해지는 서사무가 <짐가제굿>에는 고유한 저승관과 함께 불교적 세계관이 복합되는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서¹²⁾ 왜 <바리데기>에만 이렇게 강하게 불교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 지역인 평안도에서 전해지는 <제석본풀이>의 일종인 전명수 구연의 <성인노리푸념>의 결말에도 아버지를 찾아 하늘로 갔던 삼형제가 모두 포수의 총에 맞아 죽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도 반불교적 결과인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주인공이 모두 죽는 설정이 북한지역 서사무가의 한 특징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 의례와 연관된 설명이 없는 점도 아쉽다.

서사무가로서 문학적 의미와 함께 굿의 한 부분으로서 이 <바리데기>의 의미를 찾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우선은 텍스트 중심으로 문학작품으로서의 구성과 의미를 찾아본다. 그리고 의례와 연관지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작품 이해의 실마리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훗날에는 망목굿 전체 의례 속에서 <바리데기> 연행의 의미를 찾는 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다.

비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한국구비문학회, 2010, 154쪽.

11) 윤준섭, 앞의 논문, 89-90쪽.

12) 김현선, 「<짐가제굿>의 유형적 특징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29집, 2014, 53-82쪽.

2. 작품의 경계와 분석

함경남도 함흥에서 전해지는 서사무가로 알려진 <바리데기>는 일제 때 일인 학자의 소개로 극히 간략한 줄거리가 소개되었고¹³⁾, 온전한 자료로는 해방 후의 임석재 채록본인 지금섬 구송 <오기풀이>와 김태곤 채록본인 이고분 구송 <칠공주>의 두 가지가 알려져 있다. 이 둘은 모두 홍태한 편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에 수록되어 있다.¹⁴⁾ 윤준섭은 지금섬 자료의 채록본, 녹음본, 영상본을 취합하여 녹음 채록본인 『관북지방무가』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고 교합본을 만들어 석사학위논문 말미에 수록하였다. 이고분 구송본에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이 둘을 함께 이용하기로 하고 그 대략적인 서사 전개를 소개한다.

1. 하늘에서 잘못을 저지른 수차랑 선배와 덕주아 부인이 지상으로 유배와 혼인한다.
2. 자식을 얻기 위해 백일기도를 한 후 여섯 딸을 낳고, 수차랑이 부인에게 별거를 제안한다.
3. 벗고 누워있는 부인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동침하여 7째 딸을 낳는다.
4. 바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수차랑 선배의 명대로 아기를 용늪에 버린다.
5. 아기를 발견한 수궁용궁 부인이 데려가서 남편인 용왕에게 자신이 낳은 아기라고 속이고 기른다.
6. 15세가 된 바리가 지은 용왕의 관대복을 보고 오제용왕이 바리의 정체를 알려준다.
7. 원래의 집으로 돌아온 바리가 덕주아 부인을 만나 친딸임을 확인받는다.
8. 병든 어머니를 위해 문복하니 서천서역국의 약수를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13) 적송지성, 추엽옹, 앞의 책, 16쪽.

14) 홍태한, 김진영,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 민속원, 1997, 58-116쪽.

9. 바리가 서천서역국으로 떠난다.
10. 가는 길에 할머니 등의 죄상을 물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11. 동침을 요구하는 사냥꾼으로부터 벗어난다.
12. 용늪에서 울자 옥황에서 연등을 보냈고 이를 타고 올라가 옥황의 손자와 결혼하고 12명 아들을 낳는다.
13. 남편에게 꽃구경을 시켜달라고 해서 몰래 꽃을 훔치고 약수를 얻어온다.
14. 오는 길에 죄상을 물어달라던 사람들에게 죄상을 일러준다.
15. 모친의 장례행렬을 만나 꽃과 약수로 살려낸다.
16. 기물다툼을 하던 여섯 딸들이 죽는다.
17. 바리가 병들어 죽는다.
18. 바리의 삼일제를 지내러 가다가 만난 서인대사의 말에 속은 덕주아 부인이 재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보리그룻기에 넘어져 죽는다.

보다시피 정말 이상한 전개를 보인다. 수차랑 선배가 밤에 벗고 누워있는 부인을 보고 달려드는 장면이나 할미가 등장해 분명히 아들이라며 부인을 속이는 장면 등은 과장된 골계를 보여준다. 마지막에서 부인이 보리그루터기에 넘어져(이고분 본에는 삼년 묵은 조이끄끼 엮어져서) 죽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서사무가가 그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상정해야 한다. 우선 첫 부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서울 경기의 바리공주가 죽은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주 내용이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함흥본 바리데기는 일체의 가부장적 권위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늘에서 실수를 하여 지상으로 내려온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과 엄숙한 권위를 갖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수차랑 선배나 덕주아 부인은 범속하고 세속적이다. 여섯 째 딸을 낳고 별거하기로 하고는 욕정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수차랑 선배의 범속함을 우스개처럼 선보이고 있다.

…… 훌쩍 벗고 뒤비 누웠는거 보니 …… 소담스럽고 보담스럽고 예쁘고 먹음직하거늘 아이 수탄 맹세를 해 놓구 죽을방 살방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또 달려붙었어. 초방 중방 한바탕 휘었다 하드리마는 또 애기가 들었어.¹⁵⁾

이런 부인이 임신할 때마다 수차랑 선배는 부인을 위로하고 부인이 먹고 싶다는 것을 모두 구해준다. 부인이 먹고 싶은 것 얘기하는 장면은 자못 애교스럽다. 여섯째를 임신했을 때를 보자.

냥아야지, 산천도 짐작이 있겠지. 뭘 먹구 싶어?

먹었으면, 먹었으면, 이 산에 저 산에 넘어가서, 삼대독자 외나물 채도 먹었으면, 무슨지 단지 메주 콩물도 찍어 먹었으면, 통천 미역국에 납대천 기저기 나대 이밥을 먹었으면, 노릿노릿 탕가장 장굴도 먹었으면, 등실등실 굴망태 장굴도 먹었으면.

아무거나 먹구말구, 아들을 낳소.¹⁶⁾

이러던 수차랑 선배가 일곱째를 임신한 부인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버린다. 일곱째가 아들이면 찾아오게 하고 딸이면 버리라고 하고 떠난다. 하늘에서 얻은 죄의 벌이 끝나서 하늘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수차랑 선배가 죽은 것이다. 하늘로 돌아갔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덕주아 부인은 남편이 떠나자 곧 병이 든다. 그런데 이 신화는 굳이 생이별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애고 애고 이게 무슨 말이오. 이기 무슨 말이더냐. 세상에 죽어 이별은 가문가문 있다마는 살아 생이별은 생초목이 불이 불네. 내 먹겠다는 것 다 해다 맥이든 내 남편이 어디가요. 어디-.¹⁷⁾

15) 윤준섭, 앞의 논문, 114쪽.

16) 위의 논문, 111쪽.

그 부인은 혼자 대감님이 간질길이 들어서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리 우
 는게 천지 짜기 지하에 울어지게 되구
 거어, 호늘날 들어서 성인이 대신이 한분이 내려와서
 아기에미님 아기에미님 아기에미는 어찌 그리 읊니예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편으가 오늘이 이별입니다.
 그레 어찌 그리 이별임
 딸을 많이 나타나니까 그레 이별입니다.¹⁸⁾

현실적으로는 죽은 것이지만 신화적 의미를 따로 두었다고 생각된다. 남편이 떠나가는 것은 딸을 너무 많이 낳아서이고 부인이 병이 든 것은 남편과 아이와의 이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기 탯줄을 끊고는 “그지부터 지금은 부증병만 나서 앓습니다.”(이고분 133) 하고, 아기를 버리고는 “어머니는 지금 앉아서 병 속에 들어 누워서 앓고”(이고분 134쪽) 하여 부인이 병들었음을 여러 차례 알린다. 지금섬 본에는 부인이 특별히 병들었다는 언급이 없지만 맥락으로 보아 병이 들었다고 보인다.

남편은 일체의 가부장적 권위를 부리지 않는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부인은 애교가 있고 남편이 없으면 병이 드는 매우 여성적인 사람이어서 독립성이 없고, 딸들이 여섯인데 점복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또 하나도 딸일 상황에서 남편은 떠난다. <여우누이> 설화와도 같이 이 이야기는 다면성을 가진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¹⁹⁾

신화 또는 설화에서 여성성은 풍요와 자비로도 나타나지만 파괴와 죽음으로도 나타난다. 그 대표적 이미지가 인도신화의 칼리여신이다. 칼리는

17) 윤준섭, 앞의 논문, 114쪽.

18) 이고분 본,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92, 131쪽.

19) <여우누이>는 바리공주와 반대로 아들을 여럿 둔 부부가 딸 낳기를 간절히 기원한 끝에 낳은 딸을 애지중지해 키우는 이야기이다. 그 집에 소가 자꾸 죽어나가서 아들들에게 알아보게 했더니 그 딸이 소의 간을 파먹는 것이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가 집을 쫓겨난다. 이 딸이 결국 여우였고 그 부부를 잡아먹었고 돌아온 주인공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탈출에 성공했다.

목에 한 줄로 펜 인간 해골 목걸이를 하고 악마의 피 묻은 머리를 든 손과 무기를 휘두른다.²⁰⁾ 생명은 태어나기 위해 죽임을 필요로 하기에 칼리의 역할은 세계의 흐름을 나타내지만²¹⁾ 인간 삶에는 부정적이다. “이 여신의 이름은 검은 존재 곧 칼리다. 별명은 ‘존재의 바다를 건네주는 나룻배’다.”²²⁾

수차랑 선배와 덕주아 부인의 집안²³⁾의 문제는 딸이 일곱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여우누이>나 칼리 신화를 참조하면 이는 여성성의 과잉에서 오는 문제와 연결 지어 볼 수 있겠다. 이 집안의 과도한 여성성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그것은 수차랑 선배의 떠남과 덕주아 부인의 병으로 표현되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딸을 많이 나타나니까 그레 이별입니다.”가 바로 그 표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막내딸을 내보내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막내를 내보냄으로써 과도한 여성성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문제가 내부자들이 해결할 수 없기에 바깥세상을 다녀오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우누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집을 나가서 바깥세계의 원조를 통해 누이를 제치하는 막내아들이다. 모든 영웅, 주인공들은 집을 떠나서 세계의 정보와 원조를 가져 와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여기서도 바리가 15세가 되어 귀환하는 것은 입사의식을 마치고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할 것이다. 집에 들어와서는 버려질 때 자른 장가락지를 맞추어보아서 친딸임을 확인받는 의식을 가진다. 이는 남주인공 신화에서는 보통 하늘의 아버지를 찾아가 친자확인을 하는 것과 동치이다. 이는 바리가 입사를 마친 성인임을 보여주는 신화적 장치이다.

언니들도 15세가 될 텐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언니들이 입사식

20) 스티븐 하일리, 『인도, 신과의 만남』, 김홍옥 옮김, 다빈치, 2002, 166쪽.

21) 세르기우스 콜로빈, 『세계신화이야기』, 이기숙 김이섭 옮김, 까치, 2001, 88쪽.

22) 조셉 캠벨, 『세계의 영웅신화』, 이윤기 옮김, 대원사, 1989, 113쪽.

23) 함홍본의 배경은 오구국같은 나라가 아니고, 주인공이 왕도 아니다.

을 거치지 못한 존재임과 함께 바리가 가진 외부성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한다. 다른 지역의 바리테기와 달리 여기서는 특히 바리가 수궁세계로 가서 양육된다는 점은 그 이질성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여섯 언니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작품이 잘 보여준다.

그래, 칠공주 앉았다 하는 말이
어머니 여러 해를 하두 병석에 누버 이렇게 앓으니 언니네 무슨 약을 썼
습니다.

세상 약을 다 썼다. 다 써두 안 낫구 어머니 이렇게 앓는다.²⁴⁾

맏딸아 너 내 죽으면 어때?
죽으면 어때. 신당 요귀 같은 게 썩어도 지지 앓구. 썩은 새끼 목을 매서
가시방탕이에 툭 끄시고 탕기다가 가시냉기에 올려 걸어놓구 불을 당가서
이를 앙들시고 타 죽으면 그기 도무지 제일이지.

너도 내 자식이 못된다.²⁵⁾

이고분 본은 아무 해결책이 없는 여섯 딸을 보여주고, 지금섬 본은 어머니가 죽으면 가시밭에 끌고 다니다가 가시나무에 올려놓고 화장을 한다고 한다. 셋째 딸은 까마귀가 눈깔을 빼먹게 한다고 하여 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섯째는 매장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곱 째 버려진 딸이 나서게 되는데, 지금섬 본은 언니들에게 점이나 쳐봤느냐고 묻자, “점은 무슨 점을?”하는 대답을 들어서 바리가 어석국 삼무당을 찾아가서 서천서역국 약수물 이야기를 들어온다. 이고분 본은 점치는 화소가 없이 약을 썼느냐고 묻고 온갖 약을 다 써도 소용없었다는 말을 듣자 바로 약수물을 대접했느냐고 묻고 내가 다녀오겠다고 한다.

24) 김태곤, 앞의 책, 137쪽.

25) 윤준섭, 앞의 논문, 119쪽.

점을 쳐오는 것도 외부에서 가져오는 정보이고 바리가 약수를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외부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약수물 자체도 서천서역국이라고 하는 멀 뿐 아니라 이승과는 차원이 다른 외부세계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바리가 바깥세계에서 성장해서 돌아왔기에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고칠 약도 바깥세계에서 가져와야 한다. 외부인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리는 내부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정보나 원조가 필요하다. 외부자에 대한 내부자의 적대감이 심한 것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고분 본은 “어머니 처 오래 앓더니 요물귀신이 왔습니다. 신당요귀 왔습니다.”²⁶⁾라고 하고 지금성 본도 여귀 객귀 취급을 하고 나가라고 한다.²⁷⁾

이 경우에 과도한 여성성이 문제였다는 것은, 바리가 옥황에 가서 옥황의 손자와 혼인하여 아들을 열둘이나 낳는다는 설정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여성성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로 나간다고 해서 바로 약이 얻어지지 않는다. 바리는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모르는 길을 떠나자 먼저 살찐 말 마른 말들이 길을 일러준다. 이는 원조자가 동물인 경우로 ‘두 세계의 중개 기능’ 또는 무당의 영적인 원조자로서의 기능을 보여준다.²⁸⁾ 동물의 원조를 받는 것은 바리가 세계와의 동질성 확보가 가능함을 말한다.

다음으로 생원과 할머니들을 만나며 길을 묻고 그들의 죄상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다. 이는 민담에서 <구복여행담>이라는 것과 구

26) 김태근, 앞의 책, 137쪽.

27) 윤준섭, 앞의 논문, 118쪽.

28) 프로프, 『민담의 역사적 기원』, 최애리 역, 문학과지성사, 1990, 250-251쪽. 이 책에서는 특히 마술적 원조자 항목에서 말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226-252쪽). 함흥에서도 바리가 무당의 비조라면 이 무가의 말과 무당의 관계를 이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민담은 해결책이 주인공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결말인데 반해 함흥의 <바리데기>는 바리가 얻는 것은 없다. 그냥 과정으로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의 죄상을 물어주고 이들을 통해 서천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 일종의 거래인 셈이다. 이러한 타자와의 만남이 바리로 하여금 길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만남이 모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경험도 필요하다. 그것은 사냥꾼과의 만남으로 표현된다. 사냥꾼은 바리를 잡아서 아내로 삼아 살려고 한다. 바리는 할아버지 제삿날, 할머니 제삿날, 아버지 제삿날, 어머니 제삿날이라고 하며 며칠을 끌고 또 집을 수리할 나무를 해오라고 보낸 후에 도망에 성공한다. 바리가 보여준 것은 기지이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 이에 대처할 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런 모습은 바리가 지옥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서울지역과 다르게 현실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간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악한 이로부터 도망해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얻은 바리는 비약을 하게 된다. 그 비약적 발전의 표시가 하늘 옥황으로의 승천이다. 사냥꾼에게서 도망 나온 바리는 용늪에 이르러 통곡을 하고, 이를 들은 옥황이 등을 보내 올려온다. 하늘로 온 바리는 옥황의 손자 또는 선간사람과 혼인한다. 지상의 남성과는 혼인을 거부하지만 하늘의 남성과는 혼인한다는 것은 바리의 성장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다.

여정에서 얻은 경험은 만남, 기지, 비약으로 줄여 말할 수 있다. 사람들과 만나고 위기를 당해 지혜를 얻는 과정이 곧 비약적 성숙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숙은 후반부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바리는 아들을 열둘이나 낳고 사는 남편에게 꽃구경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고분 본에서는 “하두 양탈하구 물으니까디”(143쪽) 데려간다. 바리는 여기서 남편 몰래 꽃을 훔친다.

이고분 본에는 단순히 “그거 하나 슬쩍 따서 머리숱이다 여쿠”(143쪽) 정도이지만 지금섬 본은 도둑질이라고 명시한다.

그거 다 피는 꽃도 도둑질하고, 봉우래 진 것두 도둑질하구, 그러기 때문에 지하궁에 늪은이만 죽겠는 것 애타법을 쫓습니다. 하두 꽤썸해가지구. 봉우리가 진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 애들이 죽구, 더먼살이한 거 죽은 거 일곱채 바리데기 때문에 구멍이 났습니다.²⁹⁾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리와 남편이 부부지만 하나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바리는 남편 몰래 꽃을 훔친다.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준다. 이는 바리의 어머니 덕주아 부인과 대조적이기에 주목하게 된다. 덕주아 부인은 남편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에 비해 바리는 여성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약수란 바로 바리가 보여준 여성으로서의 독립성일 것이다. 이를 가져와 어머니를 살린 것은 어머니가 과도한 수동성으로 인해 남편에게 종속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성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지 못한 것을 부정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과도한 수동성과 그로 인해 초래되었던 과도한 여성성에서 비롯된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머니가 살아나는 것은 과거의 자기자신을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는 신화적인 견지에서 흔히 재생이라고 표현된다.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경우 덕주아 부인의 새로운 자아란 여성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지 못한 과거의 자기를 죽여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사태로 급전한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어머니도 죽고 여섯 딸도 죽고 심지어는 바리조차 죽어버리는 결말의 문제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29) 윤준섭, 앞의 논문, 123쪽.

3. 죽음의 신화성과 의례성

이제까지 함흥본 <바리데기>의 구성과 의미를 주로 문학적 견지에서 쫓아가 보았다. 자세히 살핀다 해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이 서사무가가 문학 이전에 곳에서 사용된 의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의례의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일곱 모녀가 죽게 되는 사정을 원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갓난아기 때 버려졌던 바리는 15세가 되는 해에 용왕국에서 쫓겨나 친어머니가 있는 오구두루이를 찾아온다. 와보니 어머니가 병들어 있어서 짐복을 해보니 서천서역국에서 약수를 길어 와야 하게 되었다. 바리가 옥황 손자와 아들 열둘을 낳고 약수를 얻고 생명꽃을 훔쳐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미 죽은 어머니의 관을 열고 다시 살려낸다.

집으로 돌아오니 여섯 언니가 기물을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고 있다. 이를 패썹하게 본 어머니는 기물을 나누어 주겠다며 딸들을 불러 저승기물을 준다. 여섯이 모두 죽는다. 지금섬 본은 “그 후에 일곱채 바리덕이 그날부터 알소.”³⁰⁾하여 인과관계 없이 바리가 병이 들어 죽는데, 이고분 본은 바리가 “그 언니 쓰러지는 것을 보구 보니 아주 기맥혀 나는 잠깐 잠시에 어머니 자겠습니다.”³¹⁾하고 앞뒤 인과로 설명한다.

뜻밖에도 바리가 죽자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바리를 묻는다. 바리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은 무조신으로서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서 크게 의문을 자아낸다. 한 가지 해결방안은 이를 바리가 신이 되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할 과정을 제시한 것일 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바리 신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의아스럽다. 다른 방안은 바리가 하늘에서 열두아들에게 신직을 주고 왔기에 더 이상 역할이 필요 없다는 기능적

30) 홍태한, 『바리공주전집 1』, 민속원, 105쪽; 윤준섭, 앞의 논문, 127쪽.

31) 홍태한, 위의 책, 81쪽.; 김태곤, 앞의 책, 148쪽.

인 면이다. 지금섬 본 끝부분에서는 “옥황에 올라가 아들 열둘을 낳고 열두 시왕을 매겨놓구 내려왔으니”(128쪽)라고 했다. 이고분 본에는 바리가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아들들에게 신직을 주는 장면을 서술한다.

너이가 새명제(삼형제)느는 삼태자(삼태성)를 앓아라. 그 답이는 칠성으루 앓아라. 그러구서리 너이 그 답이는 시왕(十王)으루 앓아서 열두시왕으루 다짓을 지어서 앓아라³²⁾

지금섬 본은 바리를 삼일고개에 묻고 삼일제를 지내러 가다가 서인대사를 만나는데, 이고분 본은 그 부분이 상세하다. 이를 보면 바리의 죽음보다 어머니 덕주아 부인의 죽음 부분이 매우 상세하다는 것에도 의문이 든다.

할수 없어서 죽은거는 내가야 되겠구 해서 내다가 봉상으로 높이높이 해서 내다 묻구서리 날이 날마다 그 산이 가서 애고 대고 애고 대고 자꾸 운다. 산신이서 신령님이 개가 밤나 앓어 인간개 와서 밤나 짓는 거 같다구 시끄럽다고 시끄러와서, 일곱째 바리더기 혼전을 깃다가 꿈일여이러 내보냈거던. 새밀(삼일)만에 들어 삼일재를 지내느라구 광주리다 제쌈(제물)을 챙겨서 엄숙히 엄숙히 챙겨서 막대를 푹푹뚫 끌구서 가거던. 대신님 한 분이 내려와 내려가는 대신님 내려가시다가 노인이 하나 광주리다 제참을 챙겨서 막대를 푹푹옥 찌구 올라오거던.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시오. 일곱째 바리데기 지금 요물 귀신이 되서 할마니 오면 잡아넉겠다구 합니다. 그러니 가지지 마오.

그러나 저러나 시게 보내지.

내려 오년데 할마니 광주리 이구 갑니다.

할마니는 어디 가

우리 일곱째 바리데기 제 지내러 가제미요.

가지 마시오. 일곱째 바리데기 뒤편 한 판 찌구서리 혼신이 꿈이여이 되어나와서 할마이 오면 잡아 잡수겠다구 지금 앓았습니다. 가지마오.³³⁾

32) 김태곤, 앞의 책, 144쪽.

33) 김태곤, 앞의 책, 149쪽.

맥락이 잡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 바리가 죽자 어머니는 바리를 묻은 산에 날마다 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산신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신할머니에게 꿈으로 바리가 어머니를 잡아먹으려 하니 오지 말라는 전언을 전하게 한다. 대신할머니가 재를 지내러 오는 덕주아부인을 보고 어디 가냐고 묻고 바리 재를 지내러 간다고 하니 바리가 귀신이 되어서 할머니가 오면 잡아먹으려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덕주아부인은 바로 꼬리를 내린다. 지금섬 본은 위에 이어서 이렇게 나간다.

그말을 듣지 마시구 큰 목숨이 없어질까봐 그 말을 듣지 말구 그냥 가셨으면 선간으루 다시 환도를 하겠는데 그말 듣구 목숨이 무섭다구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거 모두 잡수시오.³⁴⁾

지금섬 본은 어머니의 태도를 더 세속적으로 표현한다.

대사 그러면 이 책계를 가지고 온 소물은 다 잡수시오. 말뚱이 구부러도 이승이 제일이지 내 어찌 죽겠소. 대사 그것을 다 잡숫소.³⁵⁾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를 되살려준 딸의 공을 무시해버리는 덕주아부인의 모습은 전혀 선계에서 귀양 온 사람 같지 않고 대단히 세속적이고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더 널리 알려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대로 덕주아부인은 바로 바리를 포기하고 가져온 제물을 대신할머니 또는 서인 대사에게 주어 먹게 한다.

함흥의 바리데기가 골계스럽다고 알려진 대로 여기서도 웃음이 나는 부분이 있다. 대신할머니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할 말이 없구 미안하니

34) 김태곤, 앞의 책, 149쪽.

35) 홍태한, 앞의 책, 105쪽.

까”³⁶⁾ 우리 절에서 재 할 때 구경오하고 청하고 덕주아부인은 가겠다고 답한다. 그러나 어느 절인 줄 몰라서 사방 절을 찾아다니다가 한 절에 가니 재가 끝났다. 지금섬 본에서는 서인대사가 재물을 다 먹은 뒤 우리 절에 재 구경 오라고 청하는데 “윤동짓달 스무 초하루날”에 오라고 한다. 윤동짓달은 거의 없어서 ‘윤동짓달 스무하룻날 주겠다’는 말은 빚을 갚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고 한다.³⁷⁾ 있지도 않은 날에 오라고 한 것이다.

할머니는 “윤돈짓달 스무 초하루날을 찾아 땡기다가 삼년 묵은 보리 그루터기에 엮혀져”³⁸⁾ 죽는다. 이고분 본은 돌아다니다가 재가 끝난 절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해서 “돌아서서 뒤으로 돌아가니까디 뜰물동이 안이 모두 찌끼기 있는기 콩나물 찌꺼미가 배고픈짐이 그저 뉘이 없이 굶어 잠수꾸서리 가느라 가다나가 삼년 묵은 조이끄기 얹어져서”³⁹⁾ 죽었다고 한다.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는 재를 찾아다니다 죽은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끝에 삼년 묵은 보리 그루터기 또는 조 끄트러기에 얹어져 죽었다니 허무하기만 하다. 할머니 또는 서인대사에게 속아서 죽은 것이다. 여기서 서인대사를 불교의 중으로 보면 이는 “불교에 대한 무속의 강한 부정 의식의 표출”⁴⁰⁾이라고 보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반불교의식은 이 부분에 한정되어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바리데기는 왜 죽었으며 덕주아부인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이에 대해 이고분 무녀는 자기대로의 해석을 한다.

없어지구 보니까 이 열예(烈女)가 열예 나는 가문 안이요 훗자손이 좋지 못합니다. 소자(孝子) 나는 가문 안이 훗자식이 좋지 못 하니, 열여 충신이

36) 김태근, 앞의 책, 149쪽.

37) 『한국세시풍속사전 冬』, 국립민속박물관, 2006, 363쪽.

38) 윤준섭, 앞의 논문, 128쪽.

39) 김태근, 앞의 책, 150쪽.

40) 윤준섭, 앞의 논문, 80쪽.

나머는 집안 안에서 좋지 못하니, 열여 충신을 원하지 말구 있습니다.⁴¹⁾

효자, 열녀가 나는 집안은 훗날이 좋지 않기에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조의 기본 이념인 충, 효, 열을 부정하는 대단한 발언이다. 조선조에서는 자식의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효를 강조했다. 1434년 세종 16년에 왕명으로 간행한 『삼강행실도』는 바로 백성들에게 충신 효자 열녀의 행실을 교육하자는 조선시대 전반의 윤리 교과서이다. 이 책에서 “효자들은 아버지를 위해 한겨울 앵두를 찾아 혹한 속을 헤매는가 하면 손가락을 끊고 넓적다리 살을 서슴없이 베어내고 있다.”⁴²⁾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리공주를 말할 때에도 효에 초점을 맞춘다. 효는 조선의 이데올로기이며 <바리공주>는 효를 절대화하며 이데올로기화하는 기능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⁴³⁾

바리공주의 아버지 오구대왕은 큰 병에 걸린다. 버려졌던 바리가 저승에 가서 약을 구해와 살려낸다. 외형상으로 유사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있다. 오구대왕은 오구국의 왕이다. 왕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질병 국가적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⁴⁴⁾ 사회가 오래 되면 경직되어 병이 생기게 마련이고 왕을 교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학적 또는 신화적 방식으로 보편적이다. 바리가 왕을 고친 것은 나라를 되살린 것이다. 여기서 바리의 효가 부각된다. 하지만 나라의 질서라는 해석을 하면 바리 개인의 효가 아니라 효라는 이데올로기로 이해될 수 있다.⁴⁵⁾ 효 이데올로기로 다시 나라의 질서를 회복했다.

41) 김태곤, 『한국무가집 3』, 150쪽.

42) 강명관, 『옛글에 빗대어 세상을 말하다』, 길, 2006.

43) 심우장, 「바리공주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 『인문논총』 제67집, 서울대학교, 2012, 178쪽.

44) 『삼국유사』 신라 <처용가> 기사에서 역신이 일으킨 병을 “그 때 문제가 된 병은 나라의 병이다.”라는 해석도 참고할 수 있다.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235쪽.

45) 심우장은 <바리공주>가 효를 절대화하며 이데올로기화하는 맥락을 검토했다. 심우장, 앞의 논문, 178쪽.

이는 조선왕조의 역사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조선왕조가 임병 양란을 겪고 되살아난 것은 충효 이데올로기와 민중의 희생에 의해서이다. 조선은 건국 후 200년이 되자 관료화된 경직성을 보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맞게 된다. 이웃의 중국과 일본은 이 사태로 인해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뀐다. 조선은 충효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국난을 이겨내고 조선을 되살려냈다. 서울의 바리 신화가 조선시대에 재편된 것이라면⁴⁶⁾ 효와 충이라는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굳건한 충효 이데올로기의 밑받침과 민중의 희생으로 조선이 되살아난 것과 유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함흥본 <바리데기>는 어떤가? 욕정을 참지 못하는 아버지는 떠나고 어머니는 병이 들지만 이 서사의 배경에는 골계와 무질서가 배태되어 있다. 기껏 약수를 구해오지만 아무 보람이 없다. 오히려 약수로 인해 언니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바리 자신도 죽는다. 그리고 무당의 서사는 효자 열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죽음을 무릅쓴 효의 결과는 한마디로 허망하고 부절없다. 함흥 바리데기의 죽음은 충효 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배반하는 것으로 읽힌다.⁴⁷⁾

함흥본 바리데기가 종잡을 수 없게 비논리적이고 골계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서울 경기의 <바리공주>가 논리적이고 숭고함과 신성성을 보여주고 사건들이 주제를 향해 집약된다⁴⁸⁾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마치 함흥본은 서울의 <바리공주>를 일부러 뒤틀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뒤틀림이 효를 부정하는, 여성들의 죽음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새로운 가치를 배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을 것이다.

46) 조동일은 서울의 바리공주가 조선왕조의 공주인 듯이 생각되게 하고 그 서사시는 조선왕조의 서사시처럼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27쪽.

47) 심우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열이나 효가 그렇게 추구해야 할 미덕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그로테스크 미학에서 추구하는 상반된 가치의 불가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핵심부분”이라고 했다. 심우장, 앞의 논문, 156쪽.

48)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207쪽.

함흥의 바리가 보여주는 세속성과 골계미 또한 경직화된 사회 이념을 뒤엎어놓기 위한 선행조건일 것이다. 골계는 기존 질서가 가진 엄숙함을 흔들고 죽음은 노사이건 희생사이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사령국의 범주에서 처리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이 함흥 <바리데기>의 한계일 것이다.⁴⁹⁾ 이는 또한 서울 바리가 무조가 되어 철저하게 종교성을 가짐으로써 현실사회에서 눈을 돌려버린 것과 대조된다.

그런데 함흥지역의 바리는 자식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효도가 무의미하며 허무하다는 것이니 이는 조선조의 효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항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띠는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서사무가가 땅자를 위한 곳에서 불린다는 점을 다시 고려하면 그렇게 보기에는 개운치 않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원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고분 본은 신화성에 대한 강조가 지금섬 본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섬 본에는 바리 서사가 끝난 후에 곳이 이어지는 노래가 채록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자.

지금섬은 처음에 독창으로 하는 노래 중에 “사적에 근본 말삼이 있습니다.”⁵⁰⁾라고 하고 이어서 말로 “옛날 옛 시절에 나무들이 말을 하고 구렁뱀이 새를 갈길 적 그때 그 시절에”하고 바리 서사를 시작한다. 역사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무화시키는 신화적 출발이다. 나무들이 말을 하는 등의 상황은 창세의 시기이고 이를 언급하는 것은 이 곳이 세계의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계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 서사를 끝낸 지금섬은 이어지는 노래에서 다시 신화적 태초의 시간을 언급한다.

49) 이런 역할은 가령 민중종교로서의 동학이 맡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50) 홍태한, 앞의 책, 84쪽.

대탈광의 시절에
 사람이 나도 크게 나고
 짐승이 나도 크게 나고
 소탈광의 시절에느
 사람이 나도 잘게 나고
 짐승이 나도 잘게나고
 대탈광의 시절에는
 옷이라고 입은 것이
 짓이는 석 자 세 치
 쉼으느 석자라
 소탈광의 시절에는
 옷이라고 입는 것이
 짓이느 세 치로다
 쉼으느 닛 분이요⁵¹⁾

이 부분은 1923년 8월 손진태가 함흥에서 채록한 김쌍돌이 무녀의 창세가와 닮았다. 창세가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미륵이 탄생하고 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기둥을 세워서 나누고 해 달 별을 만드는 이야기에 이어서 미륵의 거인됨을 노래한다.

착 장삼을 마련하니
 전필이 지개요 반필이 소맴너라
 다섯 자이 십힐너라, 세 자이 짓일너라
 마리 곡갈 지어되는
 자 세치를 찌치내여 지은죽은
 눈무지도 안이 내려라
 두자 세치를 찌치내여 지은죽은
 귀무지도 안이내려와⁵²⁾

51) 홍태한, 앞의 책, 106쪽.

5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230쪽.

즉 대탈광 시절을 노래하는 것은 창세의 최초의 시간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이는 엘리야데가 알려준 바와 같이 창세신화는 병자를 치료하는 곳에서도 불리고 특히 죽음의 때에도 낭송된다는 것과 관계된다. “왜냐하면 죽음이 창조적이 되려면 그에 부응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상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³⁾

이는 지금섬이 덕주아부인이 삼년 묵은 보리그루터기에 엎어져 죽었다고 한 후 바로 이어서 “그래 죽으니 인간 사람이 사다가 노다가 명부 황천에 돌아가면 그 터전 그 마전에 와서 오기탈을 받기 법을 났소.”라고 하는 말과 통한다. 덕주아 부인의 죽음은 오기탈을 벗고 전생탈을 벗는 의례를 위한 죽음인 것이다. 이는 지금섬이 대탈광 시절을 말한 후 또 하나의 작은 서사무가를 부르는데 그 끝에 각종 탈을 거두어내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마감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인생탈 전생탈 다 건었소 …… 오기 탈을 건어주오 시왕 탈을 건어주오
인간탈을 건어주오 황천탈을 건어주오 인생 탈 전생 탈 다 건었소. 금일 망
령 극낙세계 인도하오.⁵⁴⁾

이 곳의 목적이 망자의 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천명한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다 죽고 마는 것인가? 그 죽음이 극락 인도와 어울리지 않기에 더 설명이 필요하다. 무가에서는 말해주지 않기에 우리가 해명해야 한다.

지금섬은 바리 서사 이후에 다시 작은 서사무가를 하나 부른다. 그 내용은 아주 흥미롭다.

53) 미르세아 엘리야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은봉 옮김, 1994, 46쪽.

54) 홍태한, 앞의 책, 113쪽.

대탈광 시절에 까마귀에게 불로초를 찾아오게 한다. 까마귀가 불로초를 소나무 아래 두었더니 소나무가 먹었다. 소나무가 늘 푸른 이유이다. 조금 남은 걸 까마귀 자신이 먹었더니 까맣게 되었다. 까마귀가 까맣게 된 이유이다. 가져갈 게 없어진 까마귀는 명두할망을 데려가기로 한다. 며느리에게 밀어도 보았으나 결국 명두할망이 가게 된다.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자식집을 찾아본다.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준 쌀밥을 한 수저 뿔더니 아래는 모두 조밥이었다. 딸 집을 찾아가니 딸은 쌀밥 위에 살짝 조밥을 얹어서 주었다. 그러나 쌀밥을 본 사위가 쌀밥이 웬 말이나고 타박하여 나온다. 손자 집을 찾아가니 외손주는 예뻐하고 아들손주는 구박하더니 왜 찾아왔느냐고 한다. 명두할망은 “거기 앉아 조삭조삭 자부더니 깜짝 별세하였구나.” 하고 명두할망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

이 이야기는 태초에 까마귀가 불로초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명두할망을 저승으로 불러가는 이야기로, 결국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하는 유래담이다. 이야기 앞에서 소나무가 늘 푸르고 까마귀가 까맣게 된 연유처럼, 사람은 까마귀가 저승으로 불러 가기에 죽게 되는 것이다.

이 서사물 구연은 세 가지 면에서 앞의 바리 이야기와 구조가 같다. 하나는 이야기 시작에 태초의 시간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바리 이야기는 “옛날 옛 시절에 나무들이 말을 하고 구렁뱀이 새를 갈길 적”이고, 명두할망 이야기는 “대탈광의 시절”에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둘째는 주인공들이 문득 죽어버리는 결말이다. 죽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도 없다. 셋째는 이야기 끝나면 무녀가 하는 말이다. 명두할미 이야기 끝에는 “어 받을 데 없습니다. 오늘으느 오기 탈을 벗고 그 터전 그 마전에”, 바리 이야기 끝에는 “인간 사람이 사다가 노다가 명부 황천에 돌아가면 그 터전 그 마전에 와서 오기 탈을 받기 법을 났소.” 한다. 이는 이 이야기 속의 죽음이 오기탈, 인생탈, 전생탈을 벗고 극락세계로 가기 위한 죽음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오기풀이의 서사무가 두 편은, 다른 지역에서 바리가 망자의 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망자의 탈을 벗기

기 위한 것이며 그 탈을 벗기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탈의 근거지인 신체를 없이 하는 것, 즉 죽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이 이후의 무가가 보여주는 사태와 일치한다. 지금섬 오기풀이의 마지막 노래는 망자를 극락세계로 인도한다고 시작하는데 망자가 가는 길은 저승이 아니라 山所일 뿐이다.

아 산천 질을 닦아두 가오 / 아 높은 데르 지겨두 간다
아 낮은 데루 미꿔두 가오
.....
어 저기 가는 저 행차는 / 아 어디서 오는 행차더나
아 항경도에 살아가던 / 아 금일 망령에 온다더니
아 히나 만사택 들이시고 / 아 관음 같이도 들어도 간다
아 행차 같이도 나라도 오네⁵⁵⁾

망자가 오는 길을 닦고 망자를 맞아들이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곳은 천상이 아니다. 가시문을 넘어서 연지당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커녕, “길양귀” 즉 나침반을 옆에 차고 명산을 찾아서 인부를 갖추어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황토색이 짙은 땅 속을 보니 명당자리가 분명하다고 한다.

아 그대여 장손들이 / 아 우리 아버지르 보시겠소
아 만년 횃집을 디리겠소 / 아 이천석 떴징 밑에
아 삼천석 횃쪽 아래 / 아 천지 글함을 디렀구나
아 우리 아버지를 모시놓고 / 아 우천개를 덮었구나
아 지절(상석) 앞에다 문을 내고 / 아 지절 뒤에다 질을 내고
이 상돌 놓고 상식 놓고 / 아 좌우 저켤에 동자로다
아 비석문을 그렸구나⁵⁶⁾

55) 홍태한, 앞의 책, 113쪽; 윤준섭, 앞의 논문, 131쪽.

56) 홍태한, 앞의 책, 114쪽; 윤준섭, 앞의 논문, 131쪽.

이 뒤는 이 명당자리에서 百子千孫이 나고 만석부자 효자 충신이 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곳의 모습과 일치한다.⁵⁷⁾ 함홍의 바리데기 무가가 망자가 극락으로 가기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전제로 망자가 삶의 탈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설명은 함홍의 바리가 약수를 구하러 가면서 할머니들과 생원의 죄상을 물어와 답을 알려 주자 그들이 구렁이, 실뱀, 말, 산신 등이 되는 것은 전생의 업에 대한 결과에 따라 탈 벗기의 사례들로 제시된 것이 아닌가 이해하게 한다. 구복여행 설화와 구조가 비슷하지만⁵⁸⁾, 설화에서는 가령 여의주 하나를 주인공에게 줌으로써 용은 욕심을 버려서 승천하고 주인공은 여의주를 얻어서 행운을 얻는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반해 이 서사에서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삶의 업에 따라 몸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 즉 전생의 탈을 벗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서사에 보이는 등장인물의 죽음 또한 다른 형태로 태어나기 위한 전제라는 것과 닮은 점이 있다.

함홍의 바리데기가 망자를 극락이 아니라 무덤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바리 서사가 장례법의 기원을 이룬다고 보는 견해와도 상통한다. 이수자는 이 서사가 “어머니를 위한 입관예법 만들기”를 보여준다고 보았다.⁵⁹⁾ 바리는 어머니를 위해 3일 건조예법, 사일 성복, 오일 성왕제, 초하루 삭망지법, 2년 소향예, 3년 대타상법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57) 이는 이고본분에서 “소자(효자) 나는 가문 안이 훗자식이 좋지 못하니, 열여 충신이 나며는 집안 안에서 좋지 못하니 열여 충신을 원하지 말고 있습니다.”라며 바리데기 서사를 마감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곳의 목적을 고려하면 지금본분이 더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고본분은 바리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문이 필요할 것이다.

58) 윤준섭, 앞의 논문, 42쪽.

59) 이수자, 「임석재채록 무가자료의 특징과 의의」, 한국구비문학회 발표논문집, 2008년5월3일(토), 동국대학교 문화관 3층, 99쪽.

함흥의 바리테기에서 등장인물들이 모두 죽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극락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무덤으로 인도하는 낯선 내용이지만 그래도 사령곳으로서의 기능은 마찬가지로 본다면, 다른 지역의 바리공주와 달리 함흥의 바리테기는 세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는 바리테기 무가의 기능이 일차적으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전생탈, 이승탈을 벗기는 것이고 탈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죽음이기에 등장인물이 모두 죽는 것으로 설정된다. 둘째는 바리가 신격으로 좌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역할이 주어지는가 할 때 그것은 바리가 옥황에서 낳은 열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바리는 생명수와 생명꽃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아들들에게 신직을 수여한다.

그래가지고 아들 열둘을 시왕에 매겠소. 맏아들은 집광대왕을 차지하고, …… 다섯째 아들은 염라대왕을 차지하고 …… 열한째 아들은 열시왕을 차지하고 열두째 아들은 두명감을 매겨놓고 약쉬물을 질러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⁶⁰⁾

너이가 새명제 느는 삼태자를 앉아라. 그담이는 칠성으루 앉아라. 그리구 서리 너이 그 담이는 시왕으루 앉아서 열두시왕으루 다짓을 지어서 앉아라. 그러구 은동이를 이구서리 영득등이 앉아 자존등이 앉아 내려왔습니다.⁶¹⁾

바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두아들에게 신직을 부여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죽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바리가 하는 일을 열두 아들이 하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바리의 역할은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기, 사람을 죽게 하는 것까지만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섬 본에서 대신할머니가 “바리테기 지금 요물 귀신이 돼서 할마니 오면 잡아넌겠다구 합니다. 그러니 가시지 마오.”⁶²⁾하는

60) 홍태한, 앞의 책, 101쪽.

61) 김태곤, 앞의 책, 144쪽.

데 암시되어 있다. 존중받는 신이 아니라 요물 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무가는 바리데기가 자기 역할인 인간의 죽음을 가져오는 기능에 충실한 무가이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대다수의 등장인물은 그 기능에 따라 죽음을 맞는다는 설정으로 이해된다.

셋째로 망자의 혼을 인도하는 것은 바리가 아니라 망목굿의 다른 역할들의 몫으로 전이된다. 가령 정제호가 잘 지적했듯이 <도랑선배 청정각시>에서의 이계여행담으로 보아 청정각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³⁾ 또한 타성풀이에서는 사자가 직접 망자를 염라대왕에게 인도한다.⁶⁴⁾ 이 과정에서 동갑들이 도와주는 모습은 동갑적계라는 무가로 마련되어 있다.⁶⁵⁾ 이렇게 역할을 떠맡기고 <바리데기> 무가에서는 저승으로 가는 혼을 몸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죽음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상에서 살아 있던 삶들은 일단 죽어야 혼백이 극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과 혼백의 역할을 분명히 갈라서 육신은 무덤으로 가고 혼백은 극락으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함흥에서는 바리데기의 오구풀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임석재의 『함경도 망목굿』(한국의 굿 8) 에도 오구굿 사진은 실리지도 않았다. 이는 “바리데기는 죽으나 신으로 승화하는 것은 서술하지 않는다.”⁶⁶⁾ 그리고 오구굿은 망자를 안주처로 인도하는 거리인데, 함흥 등지에서는 망자의 이승탈 저승탈을 벗기기 위한 거리로 되어 있어, 기능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⁶⁷⁾는 지적과도 일치한다. 함흥 오구굿의 목적은 망자의 탈을 벗겨내자는

62) 김태근, 앞의 책, 149쪽.

63) 정제호, 앞의 논문, 36쪽.

64) 김태근,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08-112쪽.

65) 김태근, 위의 책, 106-107쪽. 타성풀이와 동갑적계 언급은 윤준섭 선생의 지적으로 보완하였다.

66) 적송지성/추엽옹도 함흥의 바리데기가 “무조신으로서 전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적송지성/추엽옹, 앞의 책, 16쪽.

67)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함경도 망목굿』(한국의 굿 8), 열화당, 1985, 84쪽.

것이고 이는 죽음을 전제로 하기에 등장인물도 망자처럼 죽음을 겪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령곳의 신격으로 이해되는 바리와 생명수로 재생한 어머니조차 죽음으로 몰고가는 설정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이고 그 죽음은 육신의 탈을 벗기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는 문학적 형상화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육신의 탈을 벗어야 혼백이 저승으로 가고 육신은 무덤으로 간다는 이분법은 영혼보다 육신을 더 가볍게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이 무가의 골계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닐까? 세속적인 삶을 지탱하는 육신과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회화하는 것은 육신은 벗어버려야 할 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⁶⁸⁾ 또한 지금섬 본 말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하는 유래담 무가가 같이 구연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소나무가 늘 푸르고 까마귀는 검게 된 것처럼 인간은 모두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주제 아래 놓이기 때문이다.

김태곤이 채록한 이고분 본은 지금섬 본과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바리 서사만 채록되어 있어서 그 뒤의 명두할망 서사나 탈 벗기기, 명당찾아 모시기 등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우선 첫대목에서 태초의 시간을 제시하는 말이 없다. 단순히 “칠공주 어머니 아버니가 옛날 옛적이며터 내리오시는 길ियो다.”⁶⁹⁾이다. 바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선간 사람이었는데 사소한 실수로 인해 지상으로 내려와 부부가 되었다. 제목은 ‘칠공주’이지만 왕실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는 않다.

윤준섭이 지정한 바와 같이 지금섬 본만큼 사실이 다양하거나 풍부하지 않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골계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딸 여섯을 낳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각방을 쓰자던 남편이 덕주아부인이 벌거

68) 이는 일부 민속에서 산사람들이 자신의 나쁜 탈을 망자에게 주어 보낸다는 탈과는 성격이 다르다.

69) 김태곤, 앞의 책, 124쪽.

벗고 누워있는 모양을 보더니 “소담스럽고 예쁘고 먹음직하여 숯탄 맹세를 해놓고도 맞어죽을 숨하고 초방 중방 상방 휘여다 나드리 또 달라 부르니 또 애기 들었소.”⁷⁰⁾ 라거나, 아들을 소망하는 덕주아부인에게 방치 떡떡을 해 먹으면 자지가 생기고 동지오그래 떡을 먹으면 불알이 생긴다니 그 떡을 해먹는 모습 등 부부의 세속적이고 꾸밈없는 생활 양태의 골계스러운 장면이 이고분 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섬은 바리가 옥황 꽃밭을 구경하면서 도둑질을 해서 꽃들을 숨겼다고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이고분은 도둑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두 번만 “슬쩍” 따서 넣었다고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이고분은 더 점잖게 표현하는 것 같다. 윤준섭은 지금섬 쪽 채록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그보다는 이고분이 깔끔하게 빼대만 노래하지 살을 붙이지 않는 성격이어서인 듯하다. 김태곤은 이고분을 1964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의 주소나 이름 성까지도 묻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쌀쌀하고 신경질적이었다”⁷¹⁾고 했다. 빈곳이나 조작된 곳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의 채록은 못했다고 한다.

김태곤과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황순원이 쓴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⁷²⁾에는 함흥지역 바리를 채록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옛날 옛적부터 옛날이라 옛날이라 역사가 망녕이 들어서 일곱째공주가 망녕이 들어서”라는 노래가 나오니 바로 이고분 본을 채록하는 모습이다. 채록자인 민구는 이 결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노파를 달래어 몇 번 되풀이해 시켜봐도 똑같았다.”⁷³⁾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이 혹시 이고분 본 채록 모습을 김태곤에게 듣고 쓴 것이라면, 채록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방증이 된다.

70) 홍태한, 앞의 책, 91쪽.

71) 김태곤, 『한국무가집 3』, 71쪽.

72) 황순원, 『움직이는 城』, 문학과지성사, 1989.

73) 황순원, 위의 책, 210쪽.

무엇보다 큰 차이는 결말이다. 이고분은 바리 서사에 해석을 가한다.

없어지구 보니까 이 열녀(烈女)가 열녀 나는 가문 안이요 홑자손이 좋지 못합니다. 소자(孝子) 나는 가문 안이 홑자식이 좋지 못 하니, 열여 충신이 나머름 집안 안이서 좋지 못하니, 열여 충신을 원하지 말구 있습니다.⁷⁴⁾

충 열 효를 부정하는 발언이 무가 끝에 나온다. 이에 이어서 창으로 “역사가 망녕이 들어서 일곱째공주가 망녕이 들어서” 하고 무가가 끝난다. 이 결말 때문에 특히 함흥 바리 무가를 조선의 충 효 이념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하는 설명이 나오게 된다. 이 설명의 최초는 황순원의 그 소설에서 채록자인 민구의 생각으로 나온다. 민구는 본래 함경도는 대륙과 인접해 있어서 외적이 침입이 빈번했고,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 충신 효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으며 이런 것들이 효자나 충신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켰고 그게 오구굿 무가에까지 반영되었다고 했다. 또 선과 악도 죽음 앞에서 평등하므로 죽음에 의한 평준화를 얻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⁷⁵⁾

윤준섭은 지금섬 본을 중심으로 보아서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은 없고 서인대사의 속임수로 인한 덕주아부인의 죽음이 불교에 대한 무속의 강한 적대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⁷⁶⁾ 심우장은 이고분본의 이 부분을 적시하면서 “열이나 효가 그렇게 추구해야 하는 미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⁷⁷⁾한다고 볼 수 있음을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고분 본의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 굿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복락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볼 때 이고분이 충신 효자가 나면 집안이 좋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굿의 목적에서 어

74) 김태근, 『한국무가집 3』, 150쪽.

75) 황순원, 앞의 책, 212쪽.

76) 윤준섭, 앞의 논문, 80쪽.

77) 심우장,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 찾기」, 『어문연구』 제59집, 어문연구학회, 2009, 156쪽.

곳나는 발화이다. 이것은 곳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은 효자 열녀 충신 나라는 사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고분 본은 바리 사설만 채록되어 있을 뿐 의례에 대한 정보가 전연 없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섬 본은 바리 사설 뒤에도 또 하나의 서사무가와 창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 지금섬 본으로 보면 바리 무가는 곳이라는 의례, 사령곳으로서 망자를 인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령곳으로서의 바리공주는 일반적으로 바리공주 자신이 무신이 되어서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 함홍지역 본은 바리가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 된 그 아들들이 망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으며, 이 무가는 저승으로 가기 위해 이승에서의 탈을 벗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무가로 이해하였다. 이승에서의 탈을 벗기 위해서는 그 근거인 육신의 죽음이 전제되기에 등장인물들이 모두 죽는다는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4. 맺음말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함홍본 <바리데기> 서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과도한 여성성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의 문제를 바리를 외부로 보내어 해결책을 찾아오게 하였다. 바리는 서천으로 가는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에서 지혜를 얻어 내면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남편과 아들 열둘을 낳아도 남편 몰래 꽃을 훔쳐오는 것은 남편과 하나가 아닌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과도한 여성성을 부정한 바리는 돌아와서 어머니를 살린다.

둘째, 이상의 전반부와 등장한 모든 여성이 죽고 마는 결말의 서사는 결

이 다르다. 결말 부분은 서울 경기의 바리공주가 보여준 효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있다. 효의 결과는 부질없어서 기껏 살아난 어머니도 곧 죽고 만다. 모든 여성이 죽고 마는 것은 효 이데올로기의 전면적 부정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보이던 골계와 무질서가 삼년 묵은 보리 그루터기에 얹어져 죽었다는 허망함으로 이어져서 효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

셋째, 서사작품으로의 틀을 넘어서, 함흥본 <바리데기>가 굿이라는 목적 지향성이 강한 의례라는 점을 주목하면 이 무가의 기능이 다른 지역의 바리데기와 달리 일차적으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전생탈, 이승탈을 벗기는 것이고, 탈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죽음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모두 죽는 것으로 설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벗어나야 할 육신의 탈이기에 몸과 죽음에 대한 회화가 가능했다고도 보인다. 또한 바리가 망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죽음을 가져오는 같은 역할까지만 하며, 망자 인도는 청정각시나 저승사자 또는 동갑의 몫으로 전이되었다. 바리가 신이 되지 못하고 죽기에 그것은 옥황에서 낳은 열두 아들의 몫으로 이전되었다고 이해된다.

아울러 함흥본 <바리데기>는 수용자에 의한 역사적 재해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고분 본 맨 끝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나온다.

옛날 옛적이번터(부터) 옛날이라 젃날이라
역사가 망녕굿이 가서
일곱채 바리데기 망녕굿이 들어서⁷⁸⁾

이 ‘역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면 이 지역의 무당들에게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사는 조선의 것이면서 동시에 함경도의 역사일 것이다.

함경도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곳이었다. 특히 조선조에 심한 차별을 받았

78) 김태곤, 앞의 책, 150쪽.

다고 알려졌다. 서울의 <바리공주>가 서울의 양반집 여성들의 비호 속에서 궁궐 예법을 차용하고 바리의 용모를 거룩하게 장식하고 효를 특히 강조했다면, 함흥의 <바리데기>는 서울의 그러한 시도를 골계 속에서 무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효가 부질없는 이데올로기일 뿐 아무 효험도 없다고 하며 조선조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것은 함경도의 역사적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유배지였다는 점도 고려할만하다. 소설가 황순원도 소설 속 등장인물인 민속학자의 생각을 통해 ‘유배 오는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유교 윤리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오구굿 무가에까지 반영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⁷⁹⁾ 유교 사상에 반기를 들고 유교의 엄숙함에 골계로 대응하는 함흥 바리의 노력은 조선조와 다른 대체 이념을 만들기 위한 선행되는 노력이었는지 모른다. 변방에 있는 함경도 민중의 예감이 민중의 구비 서사문학으로 재생되었다고 생각한다.⁸⁰⁾

그런 점에서 최근에 창작된 바리 소재 현대소설들⁸¹⁾은 바리의 노력이 큰 효험을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을 하고 있어서, 함경도의 <바리데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함흥의 바리가, 중세의 바리를 현대소설 속의 바리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이다.

79) 황순원, 앞의 책, 212쪽.

80) 함경도 지역의 다른 서사무가는 유교문화에 대한 반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모든 서사무가가 그랬다면 그것은 문학이 아니라 사회운동일 것이다. 서사무가는 사회의 일반적 도덕을 답습하는 것이 많지만, 이 작품과 그에 대한 무녀의 해석은 문학으로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금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81) 송경아의 <바리 - 길 위에서> 등 바리 연작 4편이 대표적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 『옛글에 빗대어 세상을 말하다』, 길, 2006.
- 김태근,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92.
- 김진영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 민속원, 1997.
- 김현선, 「〈짐가제국〉의 유형적 특징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29집, 2014, 53-82쪽.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세르기우스 콜로빈, 『세계신화이야기』, 이기숙 김이섭 옮김, 까치, 2001.
- 스티븐 하일리, 『인도, 신과의 만남』, 김홍옥 옮김, 다빈치, 2002.
- 심우장,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 찾기- <슈렉>과 <바리공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9집, 어문연구학회, 2009, 137-160쪽.
- 심우장, 「바리공주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 『인문논총』 제67집, 서울대학교, 2012, 149-186쪽.
- 안신영,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서울본과 함경본의 대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6, 1-67쪽.
- 윤준섭, 「함흥본 <바리데기>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1-134쪽.
- 임석재·김정녀·이보형,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 적송지성, 추엽윤, 『조선무속의 연구 下』,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 정제호, 「관북지역 <바리공주>의 ‘죽음’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제25집, 2012, 7-42쪽.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 조셉 캠벨, 『세계의 영웅신화』, 이윤기 옮김, 대원사, 1989.
- 조현설, 「관북지역 본 <바리데기>의 유형적 특이성과 불교와의 관계」, 『2010년 한국구비문학학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프로프, 『민담의 역사적 기원』, 최애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0.
- 홍태한,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2002.
- 황순원, 『움직이는 城』, 문학과지성사, 1989.

* 이 논문은 2018년 2월 20일 투고되어 3월 14일 심사 완료하고 3월 15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Understanding "Death" in <Baridegi>, a Shaman Narrative of the Hamheung Region

Shin, Yeon 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We have a shaman narrative known as <Baridegi> in the Hamheung, Hamkyeong province, northern part of Korea, which is performed in Mangmook-Gut, a shaman ritual for the dead to be lead to the other world. It has a funny ending compared to other versions in other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All the characters die including the hero Bari and her mother who was resurrected from death. It is so curious that an explanation should be rendered and this explanation is offered in the light of literary and ritualistic meaning.

To wrap it up, we have three points. First, I took the note of narrative featu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Hamheung <Baridegi> is the elimination of masculinity. Even the father of Bari was somewhat comic and showed no sign of the patriarchy of the Joseon Dynasty. It is the result of the expansion of femininity in <Bari> narrative. It shows us the problem of excessive femininity in a society. They sent Bari, the 7th daughter, out of the nation to find the solution. She met other people and learned lessons from the dangers in the way of the other world. She grew and gained wisdom. She stole the flower of life from her husband which shows her independence, unlike her mother who did not lead her own life. Bari who denied excessive femininity returned and revived her dead mother back into life.

Second, Hamheung <Baridegi>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versions of the rest region in the way that everybody died. What is the point of her and her mother's deaths? Bari was to be the ancestor of shamans and her mother was to live again as the other versions of <Bari>. They are proof of filial loyalty in traditional society. In Hamheung <Bari> we feel the denial of the tradition. The filial loyalty was so useless that her mother died after all. The epic made a caricature of filial loyalty in the scene of the death of the mother; she fell over a 3-year-old barley stubble and died, finding a temple which did not exist.

Third, <Baridegi> is not part of literature itself, but for shaman ritual, 'gut' in Korean. Usually Bari becomes a god who is to lead the dead to the other world, but the function of Hamheung <Bari> is different from other versions. The purpose of Hamheung Bari's gut is not to lead the dead but to take away the disorder(탈) of life of the participants of the gut. The disorder of life is related to the past and present life and the only way to get out of it is to die and be reborn, so that all the characters of Hamheung <Bari> are to die.

I also note that it is interesting that we can recognize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society and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by the gut performers of Hamheung <Baridegi>.

Key words: <Baridegi>, Hamheung, Mangmook-Gut, Death, Femininity, Disorder(탈) Shaman ritual